

# 청암대 학내 갈등 '또 법정 가나'

배임 등의 혐의로 수감돼 형기를 마치고 나온 청암대 전 총장이 현직 서형원 총장에게 불법으로 사표를 강요하고 이를 부당처리한 일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관련 서 총장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포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확산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 모 전 총장은 2년여 전 자신이 영어의 몸이 되자 현 서형원 총장에게 청암대 운영을 부탁했다가 면회를 자주 오지 않았다는 등의 황당한 불만을 표시하며 지난 3월 출소 후 서 총장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 강 전 총장 출소후 현직 총장 불법 면직 처리 서 형원총장 법적대응 등 선포 갈등 확산일로

서 총장은 총장 취임후 이미지 추락으로 인종이 취소되고 정부 재정지원이 중단된 청암대학을 학내 화합과 안정에 힘써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총장은 "이제와서 토사구팽을 당해 억울하다"면서 성명발표를 통해 "대학교 직원들에게 강력 대응하고 법적절차도 불사하겠다"고 피력했다.

강 전 총장측은 강제로 '서형원

총장 의원 면직' 발령을 냈고 이에 대해서 총장은 "사표를 정식 제출한 사실이 없어 의원면직이란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며 "이사회 결정 공문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여타의 여태까지 불법적 절차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암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서 총장에 대한 면직을 취소하라"는 성

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장은 "교직원들이 피땀흘려 쌓은 탑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무엇이 부족해서 또 다시 불법적으로 학사에 개입해 혼란을 가중 시키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다"며 "이사회는 '서형원 총장 의원면직 발령'을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순천시인 이 모(53)씨 등은 "청암대학이 강명운 전 총장 취임후부터 줄곧 혼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목적 감사를 통해 관심사항을 파견 시키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순천=김승호 기자

## 오토바이 날치기 행각 벌인 2인조 검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날치기 행각을 벌인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28일 혼자가는 행인의 가방 등을 빼앗은 혐의(절도 등)로 A(44)씨와 B(39)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11시5분께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편의점 앞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귀가 중이던 C(41)씨의 뒤를 따라가 가방을 빼앗아 현금 70만원을 가로챈 등 전북 익산 등 곳곳에서 날치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교도소에서 만났으며 출소 뒤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중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거나 술 취한 행인을 방랑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의 추적 등을 피하기 변호관 식비를 어려운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영세상인에 상습 행패 조폭 2명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영세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사기·업무방해)로 김모(36)씨와 양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양씨는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광산구 도산동·우산동 일대 음식점에서 각각 7차례·3차례에 걸쳐 음식·술값을 내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만취 상태에서 영세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인과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시비를 걸고, 식당 안에 소변까지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당한 상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영세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임형택 기자

## 지인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30대 체포

순천경찰서는 27일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A(3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B(43·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지인인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했으며, 저항하는 B씨와 다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주변 CCTV영상으로 미뤄 B씨가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져 숨진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또 A씨가 아파트 화단에 숨겨 있는 B씨를 다시 집 안으로 옮긴 점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했었다. B씨와 성관계를 맺으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했다. 다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이날 오후 4시에 지택을 방문한 가족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순천=김승호 기자

## 중서 활동하는 보이스포싱 총책 구속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 대형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등급이 낮거나 영세한 상인 등에게 기존 대출금을 더 높게 받아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포싱) 총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중국 대련(大)시와 웨이하이(威海)시에서 국내 보이스포싱 총책으로 활동하는 A(2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부터 최근까지 "수수료를 보내면 신용등급을 올려 기존 대출금보다 더 높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 80명을 속여 298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총책 역할을 담당했던 보이스포싱 조직은 KB국민은행과 롯데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 대출 담당인 일명 '강정우'를 사칭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전통시장 화재 5년간 236건...45% 전기 요인

소방청은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가 전통시장 대형 화재로 초래할 수 있다며 28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2018년 5년 간 전통시장에서 23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매년 47.2건씩 불이 나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45건, 2015년 42건, 2016년 64건, 2017년 31건, 2018년 5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4월까지의 14건 있었다.

5년 간 발생한 화재로 15명(사망 1명·부상 1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재산 피해액도 525억원에 달한다.

시간대별 화재 발생 건수는 전통시장 문을 닫은 후인 '오후 8시~오전 0시(자정)'가 63건(26.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오전 0~4시' 47건(19.9%), '오전 8시~낮 12시'과 '오후 4~8시' 각 37건(15.7%), '낮 12시~오후 4시' 29건(12.3%), '오전 4~8시' 23건(9.7%) 순이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45.3%(107건)로 가장 많았다. 미확인 단락 24.3%(26건), 절연열화 21.5%(23건), 과부하·과전류 15%(16건), 접촉불량 11.2%(12건) 순이다.

전기적 요인 다음으로는 '부주의' (27.1%·64건), '월인 미상' (11.4%·27건), '기계적 요인' (9.7%·23건), '방화' (3.4%·8건), '화학적 요인' (1.3%·3건), '가스' (0.8%·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1700여 곳이 있다.

뉴스스



국가위기 대응훈련 2019년도 국가위기 대응연습 실제훈련이 28일 오후 강원 강릉시 구정면 코레일 차량기지에서 실시된 가운데 육군 구조대가 열차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고 있다.

## 전남 학교비정규직 무기한 농성 돌입

### 전남교육청 "교육부-17개 교육청-노조 3자 합의 우선"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차별 철폐와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또 전남농성과 출·퇴근 선진전 7월 총파업도 예고했다.

전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차별없는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던 대통령과 교육감들의 약속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채 시간끌기식 불성실 교섭으로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단체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가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수 많은 비정규직이 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차별은 여전히 심각하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교해 근속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명절 휴가비와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 등의 수당도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3년차 집단교섭을 맞아 두 달 동안 6차례 실무협의, 2차례 간사협의 했지만 교육부·교육청은 터무니없는 전제조건을 내걸며 지금까지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교섭권 침해, 교섭 회피, 부당노동

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7월 초까지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교육청 노무지원팀 관계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3자 간에 절차 합의가 안되고 있어서 지역 단위 교섭에도 애로가 많다"며 "교섭 회피나 지연은 결코 아니고 3자 합의가 이뤄지면 그에 맞춰 원활한 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현재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전문상담사 등 32개 직종에 5500여명이 학교비정규직노조에 가입돼 있다. 공무원과 여성노조 소속까지 합하면 108개 직종에 7500여명에 이른다.

김정환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